발간자료

• **조선 Weekly:** 신조선가지수 6주 연속 소수점 상승. 중고선가지수 3p나 상승. 수에즈막스탱커 중고선가가 2주 전 88백만달러에서 95백만달러로 크게 상승. 가스선 수주: HD현대중공업, KSS해운으로부터 VLGC 3척 수주(공시). HD한국조선해양, Ciner Shipping로부터 VLAC 4척 수주. 한화오션, Zodiac Maritime으로부터 VLAC 3+2척 수주. Emarat Maritime은 중국 Hengli HI에 VLAC 2척 발주. 한국 조선의 2028~2029년 잔고는 고마진으로 채워지는 중. 삼성중공업, MISC의 FSRU 1척 수주. 328.4백만달러. 델핀 FLNG 1호선의 계약은 2분기로 안내. 아르헨티나 YPF는 아르헨티나 LNG의 파이낸싱을 협상 중, 동시에 6MTPA 규모 FLNG 2기(미래 3호선까지 확대 가능)의 입찰을 진행 중으로 삼성중공업의 수주파이프라인

(조선/기계/방산 최광식)

• **HD현대중공업_BUY/104만원:** 1Q26 서프라이즈 리뷰. 모든 부분이 호조로 연결 OPM 15.3%(조선 15.9%)까지 올라옴. 빈티지 변화에 따라 더 올라갈 예정. 미국 DC향 힘센엔진 진출은 향후 후속 계약 및 생산능력 확충과 실적 상향으로 이어짐이 당연. 이에 동사의 적정PER을 23배로 적정주가 104만원으로 상향. 적정PER 조선의 20배, AI엔진 30배의 가중평균(엔진 이익기여 30% 안팎안팎) 적용

(조선/기계/방산 최광식)

• **HD현대마린엔진_BUY/14.4만원:** 1Q26 실적(매출) 서프라이즈. 매출이 YoY +61%나 성장했는데, 소규모 투자만으로 동사의 생산능력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올해 벌써 0.52조원을 수주(작년 0.62조원)해, 향후 대규모 CAPEX 계획을 기다림. HD한국조선해양의 아시아 생산거점(베트남, 필리핀, 인도 등) 확대로 가장 높은 탑라인 성장이 중장기 투자포인트. 적정주가 144,000원으로 +11% 상향. 수주 호조를 반영해서 2028~2029년의 매출(일부 잔고 기반)을 상향

(조선/기계/방산 최광식)

• **씨젠/3.9만원:** 1Q26P 매출액 1,291억원(YoY +11%), 영업이익 236억원(YoY +59%)으로 컨센서스 상회. 적정주가 3.9만원으로 상향. 계절적 비수기로 호흡기 매출 감소했으나, 비호흡기 매출 구조적 성장으로 전체 매출 성장 지속. 2026E 시가배당률 4.9% 수준. 연내 자기주식 549만주 소각 예정으로 전체 발행주수의 12% 수준

(의료기기/화장품 박종현)

,

• **코스메카코리아_BUY/12만원:** 1Q26P 매출액 1,839억원(YoY +55%), 영업이익 219억원(YoY +78%)으로 컨센서스 부합. 한국법인 매출액 1,422억원(YoY +91%) 기록, 주요 인디 브랜드 히어로 SKU 생산 확대 기반 OPM 12.5% 달성. 5/8일 기준 한국법인 2Q26E 수주 물량은 1Q26 수준 초과하며 QoQ 매출 성장 가능성 확대
(의료기기/화장품 박종현)

• **파마리서치_BUY/53만원:** 1Q26P 매출액 1,461억원(YoY +25%), 영업이익 573억원(YoY +28%)으로 컨센서스 부합. 2Q26E 일본·중국 관광객 유입 확대에 따른 의료기기 내수 성장 전망, 화장품 SKU 확장과 해외 채널 확대 기반 성장 기대. 6개월만에 실적 추정치 상향하며 적정주가 53만원 상향
(의료기기/화장품 박종현)

• **한국콜마_BUY/14만원:** 1Q26P 매출액 7,280억원(YoY +12%), 영업이익 789억원(YoY +32%)으로 컨센서스 상회. 한국법인 매출액 3,430억원(YoY +25%) 기록하며 주요 고객사 중심 고성장 지속. 미국 법인 최대 고객사 주문 회복 기반 적자폭 축소. 2Q26E 선케어 성수기 진입에 따른 QoQ 이익 개선 기대. 한국 법인 고성장과 중국·미국 수익성 개선 반영하여 적정주가 14만원 상향. 미국 법인 적자폭 감소 가시화되며 기존 디스카운트 요인 완화
(의료기기/화장품 박종현)

• **녹십자_BUY/21만원:** 1Q26 연결 매출액 4,355억원, 영업이익 117억원 기록. 알리글로 비수기 및 중동 전쟁 영향으로 헌터라제 및 베리셀라 백신 매출 부진. 고마진 품목 매출 감소로 영업이익 당사 추정치 하회. 다만 녹십자웰빙 지분 매각 처분이익 인식으로 세전이익 71% YoY 증가. 알리글로 미국 처방 확대와 하반기 헌터라제 매출 회복으로 26년 호실적 예상. 녹십자웰빙 지분매각 대금을 공장 증설 및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에 투자, 중장기 성장 기반 강화 기대
(제약/바이오 이지수)

• **바이오시밀러:** 4월 바이오시밀러는 견조한 처방 실적 기록. Rituximab: Truxima 37%, Ruxience 33%로 양강 구도가 굳어지는 가운데 Riabni는 점유율 감소세 지속. 가격인하 없음에도 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으로 고무적. Ustekinumab에서는 Steqeyma를 포함해 Yesintek 등 시밀러 전반의 처방 증가세 지속. 6-7개 시밀러가 한번에 출시되어 MS 확보가 어려움에도 자체생산/판매로 빠르게 MS 확보 중. Zymfentra는 소매 채널 처방 증가세 확인. SC 전환 수요 확대 가속화 중
(제약/바이오 이지수)

• **롯데웰푸드_BUY/15만원:** 1Q26 연결 매출액 1조 273억원, 영업이익 358억원으로 영업이익 기준 시장 기대치 상회. 영업이익 호조 요인은 1) 저수익 SKU 축소, 2) 고마진 신성장 채널 매출 증가, 3) 원재료비 부담폭 축소. [사업구조 개선] 동사는 1) 구매: 원재료 거래처 다변화, 경쟁입찰 확대, 2) 제품: 고마진 핵심 브랜드 확대, 저수익 SKU 효율화, 3) 채널: 신성장 채널향 제품 공급 확대, 성과 바탕 지점 통합, 4) 생산: 배합 최적화, 5) 영업비용: ERP 시행으로 인건비 슬림화 진행 중. [투자의견]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물류·포장재 비용 부담 잔존하나, 사업구조 개선 효과가 일부 상쇄할 전망. 하반기 카카오 투입단가 하락과 대외 불확실성 완화로 수익성 개선 기대. 인도 빙과의 우호적 기상 여건과 6월 초코파이 4번째 라인 가동도 성장 모멘텀

(음식료 이다연)

• **ESG 채권:** 국내 ESG 채권 시장은 사회적 채권 비중(83.1%)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발행 주체는 공사(68.9%)가 시장을 주도. 국내 ESG 채권 시장은 역성장을 기록하는 반면 글로벌 ESG 채권 시장은 양적 성장을 기록. 하반기 금리 정점 통과 확인 후, 11월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회복할 경우 ESG 채권 시장이 회복될 전

(제약/바이오 이지수)

• **롯데렌탈_BUY/5.3만원:** 투자의견 BUY 및 적정주가 53,000원 유지. 본업에서의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지기 시작. 장기렌탈 부분 수익성은 사상최대 수준으로, 동사 기업가치 반등에 있어 결정적 단서를 제시. 1Q26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7,310억원(YoY +6.6%), 836억원(YoY +24.8%) 기록

(자동차/이차전지 유지웅)

• **자동차(Overweight):** 6월 SoftBank의 풋옵션 행사시점 도래로 BD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 확대 중. 풋옵션 만기 시점에 SoftBank는 단순 풋옵션 행사가 아닌, IPO 밸류 보장 락인을 위한 다음 스텝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음. 공동 파트너 영입이 필요한 점에서 현재 파운데이션 모델을 공급해 주기로 한 Nvidia 또는 Alphabet 등의 참여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추정

(자동차/이차전지 유지웅)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나눔스퀘어'와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투자등급 비율

BUY : 91.7%	HOLD : 8.3%	SELL : 0.0%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

-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